

대학원생의 성인애착유형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 대처반응 매개효과

이창미*

*계명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과정
hm01035@naver.com

The effect of postgraduate adult attachment type on school adaptation : Mediating effect of stress coping response

ChangMi Lee*

*Dept. of Social Welfare, Keimy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학교 적응을 돕고자 성인애착유형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에 대한 것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의 자료는 대구지역 대학원생 31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실시하였고, 이 31명을 모두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생의 성인애착유형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인애착유형이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트레스대처반응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대처반응이 학교적응을 유의미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인애착유형과 학교적응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스트레스대처반응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서론

대학생활적응이란 적응에서 고려되는 요소인 개인의 심리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시행착오를 경험하는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박은희, 최은실, 2015) 또한 대학생 시기는 후기 청소년 시기에서 초기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므로 과도한 취업경쟁,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여러 부정적인 정서들을 경험하고 미래에 대한 심한 압박감을 받고 있다(김경옥, 조윤희, 2011).

대학원생의 학교적응은 대학생의 학교적응과 비슷하지만 또 다른 경험이 예상된다. 대학원생의 경우 학위논문 준비 및 학사과정 적응에 있어 지도교수와의 관계 및 동료 대학원생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이와 함께 학업 만족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대학생과 달리 교수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해지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대학원생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학교를 그만두거나 학교를 옮기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원생의 학교적응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애착(Attachment)을 보고자 한다. 애착

이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정서적 유대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자기자신, 타인, 사회적 관계에 대해 해석하는 내적작동모형을 내면화하게 된다(Bowlby, 1980). 생애 초기에 형성된 내적작동모형은 성인기 이후에는 성인애착으로 발달하여 타인과의 관계형성에서 정서적 유대감, 동료에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장휘숙, 2004; 정옥분, 정순화, 황현주, 2009). 특히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성인애착 선행연구에서는 성인애착유형이 대학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신선임, 2015).

대학생의 성인애착유형이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대학원생 역시 학교생활 적응에 있어 성인애착유형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애착은 행동전략에 따라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애착회피는 타인과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거나 불편해하는 것을 의미하며, 애착불안은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거나 몰두하여 거절을 받거나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차원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애착회피와 애착불안 두 가지가 모두 높을 때 불안정 애착이라고 한다.

하지만 불안정한 성인애착을 가진 사람이 모두 같은 수준에서 학교생활적응정도를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애착과 학교생활적응사이에 다른 요인이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성인애착유

형과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채택하였다. 성인애착유형에 따라 지각하는 스트레스 정도와 그에 따른 대처방식에도 차이가 존재한다(신선임, 2017).

이처럼 대학원생인 성인애착유형과 학교생활적응, 스트레스 대처반응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대학원생의 학교생활적응(홍계옥, 강혜원, 2010;), 외국인 대학원생의 학업적응(김대형 외, 2007)에 관한 연구만 진행되고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원생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애착유형과 스트레스 대처반응의 매개효과를 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에 소재하는 대학교의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대학원생 31명을 5월 14일부터 5월 18일까지 온라인에서 설문을 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총 31개 (남자 6명, 여자 25명, 응답자의 평균 연령은 25.4 세) 이다.

2.2 측정도구

성인애착 유형

Brennan 등이 (1998)이 개발한 성인애착유형검사인 친밀관계경험-개정판은 김성현(2004)이 변안한척도를 사용하였다. ECR-R은 성인을 대상으로 애착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도구이며, 하위요인은 불안과 회피 두 가지로 구성 되어있다. 불안요인은 대인관계에서의 거절과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고, 회피요인은 친밀함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편해하는 것을 나타낸다. 불안, 회피요인 모두에서 점수가 낮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부여하였다.

학교적응 척도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대학생활적응도를 묻는 9 단계 평정척도인 측정도구로, Baker와 Siryk(1984)가 제작한 대학생활적응도 검사(The Student Adaptation to College Questionnaire: SACQ)를 연세대학교 학생 상담소에서 변안한 것을 5단계 평정척도로 수정한 손유진(2003)의 것을 사용하였다. 대학생활적응도 검사의 구성요인으로는 학업적 적응 5문항, 사회적 적응 5문항, 정서적 적응 5문항, 신체적 적응

5문항, 그리고 대학에 대한 애착 5문항이다. 또한 이 도구는 5단계 평정 척도로 “매우 그렇다”는 5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는 1점을 부여하였으며 부정적 진술은 역채점 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적응도나 학습능력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Amirkhan(1990)이 개발한 스트레스 대처방식 평가지(Coping Strategy Indicator : CSI)를 신혜진과 김창대(2002)가 변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 스트레스 대처방식 검사지(K-CSI)를 사용하였다. K-CSI는 문제해결중심 대처,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 회피중심 대처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33문항을 구성되어 있으며, 3점 리커트 척도이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SPSS Statistic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성인애착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① fm1 : [모형 1] 대학원생의 성인애착유형 → 학교생활적응

F-statistic = 7.428, p-value = 0.01077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이 회귀식은 회귀분석 모델 전체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efficients에는 y절편값(intercept) 및 변수들의 p-value값을 살펴볼 것입니다. adaptation변수의 경우 Estimate(회귀계수) = -1.2725, $pr(>|t|) = 0.0108$ 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attachment를 설명하는데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justed R-squared(수정된 R계수)의 값은 0.1765로 17% 만큼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fm2 : [모형 2] 스트레스대처반응 → 학교생활적응

F-statistic = 3.305, p-value = 0.07939로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이 회귀식은 회귀분석 모델 전체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efficients에는 y절편값(intercept) 및 변수들의 p-value값을 살펴볼 것입니다. adaptation변수의 경우 Estimate(회귀계수) = 0.6713, $pr(>|t|) = 0.07939$ 로 유의수준 0.1보다 작

으므로 attachment를 설명하는데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djusted R-squared(수정된 R계수)의 값은 0.07939로 7% 만큼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fm3 : [모형 3] 대학원생의 성인애착유형, 스트레스 대처반응 → 학교생활적응

F-statistic = 5.138, p-value = 0.01256로 유의수준 0.1보다 작으므로 이 회귀식은 회귀분석 모델 전체에 대해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Coefficients에는 y절편값(intercept) 및 변수들의 p-value값을 살펴볼 것입니다. adaptation변수의 경우 Estimate(회귀계수) = -1.5142, $pr(>|t|) = 0.00386$ 로 유의수준 0.05보다 작으므로 attachment를 설명하는데 유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stress변수의 경우 Estimate(회귀계수) = 0.3601, $pr(>|t|) = 0.12716$ 로 유의수준 0.1보다 크므로 attachment를 설명하는데 유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Adjusted R-squared(수정된 R계수)의 값은 0.2162로 21% 만큼의 설명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성인애착유형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지 알아보고, 스트레스대처반응이 성인애착유형과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살펴보고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원생의 성인애착유형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성인애착유형이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애착유형이 대학원생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요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둘째, 스트레스대처반응이 학교적응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대처반응이 학교적응을 유의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트레스대처반응을 잘 할수록 학교적응을 더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셋째, 대학원생의 성인애착유형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대처반응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성인애착유형과 학교적응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지만, 스트레스대처반응의 매개효과는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성인애착유형과, 스트레스대처반응이 각각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대처반응을 매개효과로 하여 학교적응을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1] 김대형, 김아영, 강이화, “중국인 대학원 유학생들의 학업 적응 경험에 대한 근거이론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2007년.
- [2] 김경옥, 조윤, “대학신입생의 진로스트레스와 대학생활적응과의 관계에 자기효능감의 매개 및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 18권 4호, pp. 197-218, 2011년.
- [3] 김성현,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구: 확장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년.
- [4] 박은희, 최은실, “성인애착과 대학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대인관계능력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 28권 1호, pp. 57-79, 2015년.
- [5] 신선임, “부모애착이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제 24권 5호, pp. 131-154, 2017년.
- [6] 홍계옥, 강혜원, “대학생의 부모애착, 학업적 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유아교육연구, 제13권, pp. 133-144, 2010년.
- [7]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Sadness and depression. London: Hogarth.
- [8]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grative overview. In J.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relationships (pp. 46-76). New York: Guilford Press.